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라북도 의료관광 성장동력 가능성 높다

2008. 6. /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이 동 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약

● 의료관광의 개념 및 중앙정책 동향

-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
- 정부는 의료관광을 가능성이 높은 성장동력 산업으로 판단하고 Service-PROGRESS I 추진 계획을 통해 2012년까지 6천명 일자리 및 9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 전망

● 의료관광 사례의 시사점

- 국내 의료관광은 서울, 원주, 제주, 부산, 대구, 전남, 인천 등을 비롯하여 인도, 태국, 싱가포르, 레바논, 중국 등에서 추진
- 국가별 강점과 특성에 따라 휴양형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중심의 관광 등 선택수술 및 중증치료 등 다양하게 추진
- 전북은 의료관광을 해외환자유치만을 강조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산업적 기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을 통해 전략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전북 의료관광 특화 부문

- 의료관광 대상 국가는 미국(교민), 일본, 중국(고소득계층)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고령자를 주요 대상 설정
- 전북 의료관광의 특화부문은 호흡기·알레르기 질환과 양·한방을 중심으로 휴양성 의료관광을 통해 차별화 추진
- 전북 자원을 연계한 해양휴양벨트, 산악레저벨트, 한방휴양벨트 등을 통해 H-Belt 구축

● 의료한방건강산업 기반 집적화 단지 조성

- 집적화단지 조성은 정부의 정책 수용 및 산업적 관점, 글로벌 의료수요의 선점 등을 위해 복합의료레저단지조성(신규조성)과 의료R&D 메디컬폴리스 조성(기존 지역) 등 선택, 추진
- 복합의료레저단지는 외국병원 유치 및 대체의학·재생의학 R&D 집적화 추진을 통해, 정부의 특화와 실용을 실현하는 선도적인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함
- 의료R&D 메디컬 폴리스 조성은 기존 지역의 기능 전환 및 R&D 강화를 통해 추진하며, 국가천식·아토피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R&D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 조성(한의학 R&D, U-Healthcare R&D) 등을 추진

목 차

전라북도 의료관광 성장동력 가능성 높다

- I. 의료관광시대의 도래 1
- II. 전라북도 의료관광의 가능성 5
- III. 의료관광 추진사례 11
- IV. 전라북도 의료관광 추진 방향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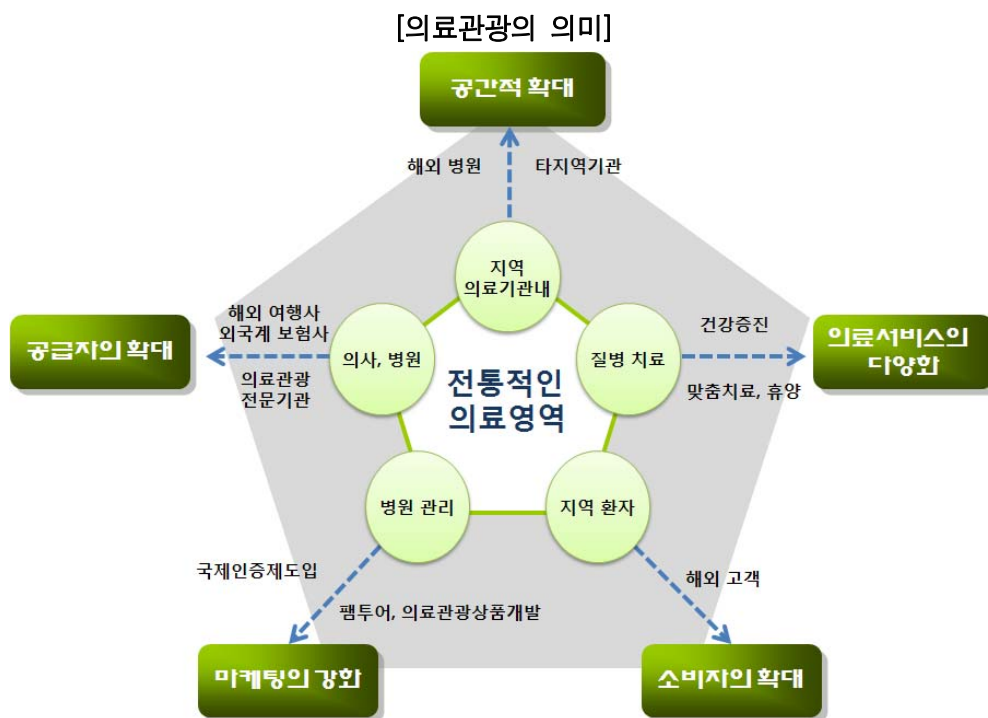
1. 의료관광 시대의 도래

□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 : 의료관광

- 정부는 서비스 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하여 성장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도도 필요
 - 전북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2006년 기준 GRDP 47%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평균 42%보다 높음
 -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노동투입에 대한 생산성을 보면 2006년 기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지방평균 91%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전북지역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기업규모나 시설투자의 영세, 고급인력의 부족,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미흡 등이 원인임
 - 전북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서비스 수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이며, 이와 연계한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발생

- 의료서비스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고용창출효과도 타산업에 비해 높음. 의료서비스 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1.8배에 이르고 고용창출효과도 3.3배임. 이에 따라 신 정부는 관광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의료관광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천명 일자리 및 9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 창출 전망

- 의료관광은 맞춤형 의료,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소비주의 확산, U-Health의 보편화로 발전 전망이 밝으며, 정부의 의료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첨단의료기술 개발 활성화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적으로도 의료서비스 및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의료관광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로 의료·관광·IT 등 이종 부문 간의 융합, 급증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를 줄이고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 구매를 목적으로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 가능성 확대
- 의료관광은 전통적인 의료영역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의 시·공간적 확대, 새로운 공급자와 소비자의 등장, 단발성 질병치료에서 휴양과 연계된 고품질 치료, 평생치료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서비스 산업 성장 동력화를 위한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비전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제시하고(08.4.28), ‘Service-PROGRESS I·II·III’ 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Service - PROGRESS I」에서는 서비스 수지 개선 목표로 의료관광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와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 범위, 부대사업 범위(호텔업까지 가능) 등을 대폭 확대

[의료관광 action plan]

	실천과제	실천내용	담당기관	세부 일정
6.30일 까지	◦해외환자의 유인 알선허용	■ 의료법 개정	보건복지가 족부	5.31까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호텔 등 숙박업 영업 허용)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가 족부, 지식경제부	6.30까지
	◦대상국가별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	■ 상품개발(미국, 일본 등) ■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개최	보건복지가 족부 문화체육관광부	4월부터 11월
12.31일 까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 규제 대폭 완화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제출	보건복지가 족부	9.30까지
	◦사업추진체계 정비	■ 해외환자 유치사업 법인화 추진 ■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언어교육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보건복지가 족부	12월까지 '09년
09년 이후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	■ 국가 인증제 도입	보건복지가 족부	'10년

□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관광 추진 기반 강화

- 정부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기 제출 국무회의에 통과한 (07.5.8)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임시국회(08.5)에 처리토록 하여 의료기관 규제완화를 추진
- 국내의 의료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산업과 같은 **복용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환자 대상 **유인·알선 허용**, 해외 환자와 동반 가족은 치료 완료시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제도 개선**,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양·한방 협진 허용 등 **국내 의료기관 규제 완화** 등을 추진

〈개정주요내용〉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의료인의 설명의무 신설(안 제3조제2항)
- 환자 진료기록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2조)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안 제44조)
-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안 제48조)
-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안 제60조)
-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안 제61조)
-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안 제62조)
-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 입법예고 조정(안)에서 변경된 내용

- 종합병원 병상 기준 강화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당직의료인 배치에 대한 예외근거 규정 마련
-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

II. 전라북도 의료관광의 가능성

□ 안정적인 의료인력 및 기반 구축

- 전라북도 의료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2,312개소, 의료기관 병상수 20,354개, 의약품제조업소 67개소, 의약품판매업소 1,187개소, 의료인력 6,456명으로 양질의 의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음

[전라북도 의료 관련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의료기관	의료기관병상수	의약품제조업소	의약품판매업소	의료인력
전국	54,728	410,581	3,470	25,727	163,943
서울	13,963	66,267	569	6,240	46,004
부산	4,145	35,289	154	1,812	14,911
대구	2,902	21,500	103	1,513	10,269
인천	2,355	19,133	234	1,058	6,391
광주	1,558	14,940	48	935	6,594
대전	1,823	15,248	87	868	5,666
울산	1,067	8,788	28	412	3,099
경기	10,681	74,882	1,412	4,530	25,591
강원	1,498	15,668	117	823	5,455
충북	1,538	13,460	181	825	3,941
충남	2,174	17,289	200	1,151	4,963
전북	2,312	20,354	67	1,187	6,456
전남	2,137	21,693	46	1,203	6,414
경북	2,792	26,426	119	1,415	7,118
경남	3,166	36,607	96	1,493	9,706
제주	617	3,037	9	262	1,365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2006), 보건복지통계연보(2007)

- 전라북도 병원 종사 의료 인력의 경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풍부한 의료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1,295명, 치과의사 139명, 한의사 93명 등이며 이 중 한의사 인력은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전라북도 병원종사의료인력, 2006년]

(단위: 명)

구분	총계	의사	치과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사	약사
총계	163,943	35,184	2,490	1,327	880	75,784	19,583	23,696	2,168	2,831
서울	46,004	11,847	954	438	188	20,729	4,260	6,184	489	915
부산	14,911	3,069	146	89	232	6,248	2,634	2,046	188	259
대구	10,269	2,159	206	61	43	4,651	1,146	1,689	144	170
인천	6,391	1,398	77	42	30	3,118	612	962	78	74
광주	6,594	1,463	182	62	20	3,189	600	906	85	87
대전	5,666	1,379	61	68	24	2,692	524	724	91	103
울산	3,099	567	22	21	17	1,527	329	522	40	54
경기	25,591	5,349	282	192	137	11,937	2,816	4,067	328	483
강원	5,455	1,122	131	47	11	2,589	731	683	62	79
충북	3,941	763	29	50	12	1,800	563	597	58	69
충남	4,963	919	136	34	15	2,100	845	746	102	66
전북	6,456	1,295	139	93	27	2,939	865	862	137	99
전남	6,414	935	26	40	32	3,394	912	880	97	98
경북	7,118	1,159	48	70	50	3,614	882	1,088	103	104
경남	9,706	1,511	46	16	35	4,455	1,795	1,552	142	154
제주	1,365	249	5	4	7	802	69	188	24	17

자료 : 보건복지 통계연보(2007)

- 전라북도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보면 총 전문의 중에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신경정신과, 성형외과, 방사선과, 핵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의가 많은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등임.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장수이며, 그 다음으로 무주, 진안, 임실 지역으로 대부분 동부권 지역임

[2006년 전라북도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

구분	전 문 과 목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군산	1,849	326	172	143	160	11	25	63	152	77	32	24	66	76	44	53	8	63	8	97	29	5	14	17	13	158	2	0	11
김제	212	36	22	20	21	2	3	5	20	9	1	3	6	9	3	8	1	5	1	9	2	1	1	0	0	22	0	0	2
남원	68	12	8	3	6	0	1	6	5	3	1	0	3	3	1	2	1	1	0	3	2	0	0	0	0	7	0	0	0
익산	90	13	7	6	9	0	2	2	7	4	3	1	4	3	2	4	0	2	0	7	1	0	0	1	2	9	0	0	1
전주	299	56	28	23	20	1	8	8	25	13	6	6	13	12	9	7	2	14	2	12	4	4	3	4	2	15	0	0	2
정읍	896	165	74	75	86	7	9	27	70	33	14	13	33	39	27	23	2	36	4	51	15	0	10	11	8	57	2	0	5
정읍	93	14	11	6	5	0	1	3	8	4	1	0	3	5	1	4	1	3	1	6	1	0	0	1	0	14	0	0	0
고창	28	4	1	1	2	0	0	2	1	4	1	0	1	2	0	1	0	0	0	1	0	0	0	0	0	6	0	0	1
무주	12	2	3	0	3	0	0	0	0	2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부안	45	9	5	3	3	0	0	2	5	3	0	0	1	2	0	2	0	2	0	3	1	0	0	0	0	4	0	0	0
순창	22	5	3	1	2	0	0	1	3	1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완주	37	5	2	3	0	1	1	7	4	0	0	0	0	0	0	1	0	0	0	1	1	0	0	0	1	10	0	0	0
임실	19	4	3	1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7	0	0	0
장수	10	1	4	1	1	0	0	0	1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진안	18	0	1	0	2	0	0	0	2	0	2	0	1	1	0	1	1	0	0	2	1	0	0	0	0	4	0	0	0

전문과목코드 : 1.내과2.외과3.소아과4.산부인과5.신경정신과 6.신경과7.정신과8.정형외과9.신경외과10.흉부외과11.성형외과12.안과13.이비인후과14.피부과15.비뇨기과16.방사선과17.진단방사선과18.방사선종양학과19.마취통증의학과20.재활의학과21.결핵과22.진단검사의학과23.병리과24.예방의학과25.가정의학과26.핵의학과27.산업의학과28.응급의학과

자료: 의료정책연구소, 2006 전국 회원 실태 조사보고서, 2007

□ 의료관광 입국 외국인 증가

- 국내 입국비자 종류 가운데 의료비자가 없기 때문에 의료목적의 입국자를 알 수 없으나,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외래객 입국이 2000년에 5백만 명에서 2007년에 6백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한국방문목적은 보면 2007년도에 건강, 치료 목적으로 0.2%가 입국하였음

[출입국 및 관광수지 통계]

(단위: 천명, 백만 불, %)

구분	외래객 입국 증가율		내국인 출국 증가율		관광수입 증가율		관광지출 증가율		관광수지
2000	5,322	14.2	5,508	26.9	6,811.3	0.1	6,174.0	55.3	637.3
2001	5,147	-3.3	6,084	10.5	6,373.2	-6.4	6,547.0	6.0	-173.8
2002	5,347	3.9	7,123	17.1	5,918.8	-7.1	9,037.9	38.0	-3,119.1
2003	4,753	-11.1	7,086	-0.5	5,343.4	-9.7	8,248.1	-8.7	-2,904.7
2004	5,818	22.4	8,826	24.5	6,053.1	13.3	9,856.4	19.5	-3,803.3
2005	6,022	3.5	10,078	14.2	5,793.0	-4.3	12,025.0	22.0	-6,232.0
2006	6,155	2.2	11,610	15.2	5,759.8	-0.6	14,335.9	19.2	-8,576.1
2007	6,488	4.8	13,324	14.8	5,750.1	-0.2	15,880.1	10.8	-10,130

자료: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외국인 한국방문목적]

(단위: %)

구분	2007	2006	2005	2004
여가/위락/휴가	42.2	43.3	42.2	44.4
사업/전문활동	40.3	42.6	43.7	42.7
친구/친지활동	11.5	9.1	9.5	7.8
종교/순례	0.8	1.0	0.9	1.1
건강/치료	0.2	0.0	0.2	0.1
기타	5.0	3.7	3.6	3.9

자료: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07.

-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를 추정한 결과 2007년 외국인 방문객 6,448천명 가운데 건강 및 치료 목적의 입국자는 12,896명으로 추정됨. 국내 방한 외국인 600명 중 한 명 정도는 건강 및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의료관광객수 추정]

(단위: 명)

구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외래관광객수	6,448,241	6,155,047	6,021,764	5,818,138	4,752,762	5,347,468
의료관광객수	12,896	2,685	12,044	11,636	9,506	10,695

출처: * : 유지윤(2005). 관광산업복용화 촉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참고

** : 윤형호(2007). 서울시 의료관광의 국제마케팅 육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참고

*** : 연구자가 추정

- 입국한 외국인들의 방한 기간 중 활동을 보면 피부미용관리와 같이 유사한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받고 있음. 방한기간 중 활동 가운데 미용관광이 10.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방한기간 중 활동]

(단위: 명)

구분	2007	2006	2005	2004
쇼핑	65.5	58.9	85.6	85.8
관광지방문	59.3	56.1	61.8	60.0
식도락	33.2	38.9	31.5	32.0
업무수행	29.3	28.7	16.2	16.9
유흥/오락	10.6	10.1	12.7	15.1
미용관광	10.0	10.0	12.8	13.4
미팅/회의/학술대회참가	9.8	11.4	20.7	18.7
문화체험	5.6	5.7	7.8	7.1
공연/민속행사참가및관람	3.8	5.7	-	-
연수/교육/연구	5.4	5.6	5.3	6.0
산업시찰	5.3	7.1	7.9	7.3

자료: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07.

- 전라북도에 방문한 외국인은 2007년에 211천명, 2006년에 304천명으로 나타남. 전년대비 내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 관광객수]

연도별	구분	총 관광객(천명)			전년대비 증가율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2007		51,675	51,464	211	3.3%	● 축제제외 관광객 : 39,066 ● 축제 관광객 : 12,609
2006		49,995	49,690	304	- 0.5%	● 축제제외 관광객 : 35,088 ● 축제 관광객 : 14,907
2005		50,252	49,942	311	21.2%	● 축제제외 관광객 : 39,596 ● 축제 관광객 : 10,656
2004		41,453	41,104	349	15.2%	● 축제제외 관광객 : 27,917 ● 축제 관광객 : 13,536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북대 병원에 방문하는 외국인 진료환자수를 보면 2004년 966명에서 2007년에 2,195명으로 지속적 증가를 보이고 있음

[외국인진료환자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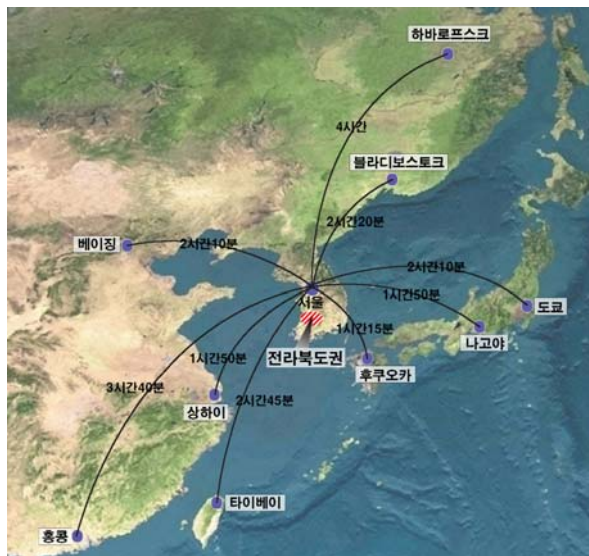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07	2006	2005	2004
외국인 진료환자수	2,195	1,670	1,160	966

자료: 전북대병원 내부자료

□ 의료관광 허브적 입지 및 지자체 기반

- 국내외적으로 전라북도는 국제적 경제자유도시로 성장이 기대되는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동북아 의료낙후 지역으로 부터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한의약 등이 발달하여 의료수준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영화촬영장소로 급부상하고 있어 지역 관광자원과 한류의 문화적 영향 등으로 더욱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WTO는 한·중·일·러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이 국제 관광목적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동북아 공간구조에서 전라북도권]



-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과 향후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서울~익산~목포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평양을 거치는 중국 횡단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세계적인 교통망이 확충되어 의료관광 허브 지역으로 급부상 전망
- 의료관광의 추진은 지역의 의료 기반 및 관광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함. 이 중 완주군의 모악산 여성한방특구(치료 중심의 여성병원, 요양개념의 휴양병원), 익산시의 종합의료과 학산업단지(치료의료연구단지, 휴양단지), 진안군의 홍삼한방클러스터(아토피클러스터, 홍삼한방약초센터)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어 의료관광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지자체 주요계획 및 시설]

지 역	주요 계획 및 시설
완 주 군	모악산 여성한방특구
익 산 시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원광대병원, 한방병원
전 주 시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노인보건센터, 어린이병원
진 안 군	홍삼 한방 클러스터(아토피클러스터, 홍삼한방약초센터)
무주군	태권도공원, 무주관광레저도시, 무주리조트

III. 의료관광 추진 사례

□ 국내외 의료관광 추진 사례

- 국내 의료관광 추진 사례

지 역	사업명 (주체)	내 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원주	양·한방의료 관광단지	클리닉센터, 콘도, 호텔, 실버타운, 골프장, 워터파크, 한의학박물관 등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삼환기업,고려개발,동부건설,대림산업등)구성하고 원주, 상지대, 연세대와 산학협력체제구축	2008-2011 34만평 4,200억
경기	의료관광복	건강검진센터, 특화진료센터, 한방클리닉, 성형센터, 호	-용역중

	합단지	텔, 리조트, 건강관리센터, 관광 및 쇼핑센터 등	-2011년 이 후 추진
서울	서울시, 서울대병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간 의료관광 양해각서(07.2.13), 의료관광패키지 상품개발, 해외 교포대상 마케팅, 관광패키지 홍보물 제작, 의료기관영 어교육 및 통역지원	-
제주	우리들월니 스리조트	골프장18홀, 콘도, 공연장, 메디컬센터, 척추전문병원, 척추클리닉, 건강검진센터, 재활트레이닝	37만평 1,800억
	한방관광파크	서귀포시와 대한한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 약초재배단지, 약초가공시설, 한방체험수련원, 한방메디컬센터	18만4000평 1,808억
	웰빙테마 타운	제주개발센터와 대통령자문 의료선진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제주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스파, 워터파크 등	2006-2010 30만평
부산	동남권원자 력한의원	부산시와 기장군이 공동으로 동북아의료관광허브로 육성, 병원 및 연구시설, 전문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방사선의학연구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시설, 테마정원 등	2만2247평 2006-2008 1,223억
대구	테마형의료 관광단지조 성	의료관광산업을 미래동력산업으로 선정, 여행업체 및 33개 병의원과 협약, 원스톱의료서비스센터운영, 해외 유명병원유치, 한방·치과·템플스테이 연계 프로그램, 전남과 영·호남 공동 의료관광프로젝트수립중	사업계획중, 의료관광단 유치
전남	의료건강복 합단지 조성	고령사회대비 질환별 복합단지 조성, 재활+휴양+문화 관광 연계, 아토피 치료·재활단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우드랜드) 조성	국가사업추 진건의 6,000억원(국비1,000 지방비 600 민자 4,000)
인천	송도 NYP병원	인천국제도시개발센터, NYP(미국뉴욕장로병원), 연세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 심장과 암 등 질병 특화치료센터	2만5000평 2006-2008 NYP(6억달 러),국내(1억 달러)

● 국외 의료관광 추진 사례

지 역	주요실적	성공요인
인도	2004년 18만 명의 해외환자, 3.3억 불 외화수입 실현(매년 25%성장, 2012년 20억불 외화수입 전망)	·선진국 1/8 수준의 의료서비스 가격과 대기 시간 없는 시술 ·선진의료기술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IT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 홍보 및 고객유치 ·의료비자 발급, 의료관광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외국인직접투자 한도 확대 허용 등 정

		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태국	2005년 128만 명 해외환자, 8.9억 불 외화수입 실현(주요 해외환자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중심)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공신력 있는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인증 ·외국환자One-Stop서비스제공, 저렴한 의료비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브상품, 쇼핑의 연계하여 시너지 극대화
싱가폴	2004년 27만 명 해외환자, 2.9억 불 외화수입 실현(2012년까지 연 100만 명 해외환자 유치, 30억불 외화수입, 약 1만 3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	·경쟁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글로벌제약회사와 공동R&D센터설립 ·해외환자전용서비스센터 운영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센터 운영
레바논	중동 의료관광 허브로 급부상, 중동지역의 의료관광시장 25억달러추정, 연간2만5000명 유치, 총1억2500만-2억5000만달러수입	·영어, 불어, 아랍어 등 3개국어를 구사하는 의료진구성 ·건강증진과 회복, 휴식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경관
중국	중국의학과학원암치료병원(전문클리닉운영), 동직문병원(양한방협진진료), 동방병원(우수인력과 첨단설비, 향기목욕실, 기능단련실 등)	저렴한비용, 전통적 한의학과 첨단의료장비 구비

□ 시사점

- 의료비용이 저렴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춘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증가. 태국의 방콕병원은 전체 환자의 80%가 외국인 환자이며 다양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별 강점에 따라 다양한 의료관광모델을 통해 특성화, 차별화 모색함.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태국은 질병치료보다 휴양에 중점을 둔 리조트형 의료관광모델 구축, 싱가폴은 휴양보다는 의료서비스에 중점
- 동남아 의료관광 추진 병원들은 초기에 성형수술, 피부관리, 선택수술에서 시작하여 중증치료까지 단계적 발전. 싱가폴의

경우 인도와 태국보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육성분야를 일반 치료에서 중증치료 중심으로 전환 전략 추진

- 국내 지자체의 경우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복합시설단지, 산학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특히 서울과 제주도의 경우 지역적인 의료기반 및 주변 자원 등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전략 추진, 대구시의 경우 전남과 공동의료관광프로젝트 추진 등 의료관광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가 의료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 독자적 추진보다는 전후방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한 R&D 기반 산업화를 추진하여 성장동력으로 적극적 지원,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 경쟁우위기반을 활용한 휴양성 의료관광으로 특화를 통한 상품 개발 및 차별적 마케팅 추진, 국제적 홍보 및 지원방향 마련 등이 필요함
- 의료관광은 미래 유망 의료서비스 산업이나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전라북도가 전략적 투자 및 지원체계 구축, 산업화와 연계한 인프라 형성 시 비교우위 선점 가능

IV. 전라북도 의료관광 추진 방향

전략 1. 의료관광 특화 분야 및 의료관광상품 개발

- 의료관광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가 경쟁력 있는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특화 분야 육성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유치대상지역 및 주요대상

- 전라북도의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집중 관리해야 하는 유치 대상국은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친밀성 등을 고려할 경우 미국, 일본, 중국임. 미국은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미국 교민, 일본은 미용 관광, 건강검진에 관심이 있는 계층, 중국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소득 계층
- 주요 타겟은 해외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화 및 식생활 습관 등에 따른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의 치료 및 예방, 재활치료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2013년 까지 중국이 연평균 6.9%, 인도 6.2% 등 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삼성경제연구소, 2006)

□ 특화부문

- 전라북도는 접근성, 자연조건, 관광자원,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치료, 영양과 연계된 한양방 치료(노인질환, 재활치료 포함), 한·양방 협진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휴양성 의료분야**가 특화될 수 있음

특화부문 1 :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 치료는 연간 9만 여명에 달하는 많은 수의 호흡기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 최상위에 해당함
- 전북대학교 병원은 폐암에 대한 고주파 소작술, 냉동 치료 등의 시술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폐암의 표준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우수한 치료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함.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의 이

용철 교수팀의 우수한 연구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상태로 국가지정연구실을 비롯한 국가연구사업을 수행중이며 국내 최고의 연구 성과를 냄

- 전북대병원은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진료 환자가 87,051명(2006년기준)으로 국립 대학교 병원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방문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외래환자 54,912명, 입원환자 35,570명, 외국인 환자 177명 등임

[국립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진료현황 비교, 2006년]

(단위: 명)

구 분	외래실인원	입원연인원	총환자수
전북대학교병원	51,291	35,760	87,051
경북대학교병원	33,269	18,993	52,262
경상대학교병원	12,760	13,998	26,758
부산대학교병원	28,621	20,798	49,419
서울대학교병원(본원)	41,627	19,171	60,798
전남대학교병원	15,948	12,906	28,854
제주대학교병원	14,037	4,120	18,157
충남대학교병원	21,760	21,814	43,574
충북대학교병원	28,077	5,615	33,692

자료: 전북대병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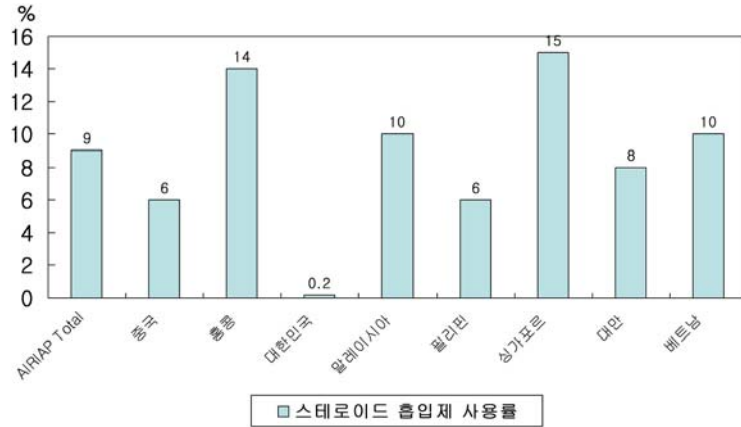
[전북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연도별 진료현황]

(단위: 명)

구 분	외래연인원	입원연인원	총환자수	외국인환자수
2005년	50,637	34,740	85,377	38
2006년	51,291	35,760	87,051	79
2007년	54,912	35,570	90,482	177

자료: 전북대병원 내부자료

- 천식과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발생은 사회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며, 선진국의 천식 유병률은 우리나라의 2~3배에 이르고 있고 국내의 경우 70세이상 노인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적으로 관심 증대. 천식 증상으로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 환자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북의 청정자연환경과 연계할 경우 특화 진료 과목으로 경쟁력이 높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7

특화부문 2 : 한·양방

- 전라북도는 의과대학 중심의 양방과 한의과대학 및 전문 인적 자원 풍부, 지자체의 한방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타 지역에 비해 한방제조, 유통, 서비스 부문 등에 경쟁력을 보유한 한방 분야가 공존하고 있음

[한방관련 지역의 위상]

	한방제조/유통/의료서비스						한약재 재배생산						연구지원	
	시장점유율			지역특화도			시장점유율			지역특화도LQ			시장점유율	
	한방 생산 식품	한방 유통	한방 의료	한방 생산 식품	한방 유통	한방 의료	생산 량	재배 면적	재배 능가	생산 량	재배 면적	재배 능가	한의 대학	연구 소
대구				○	○	○								
경북							○	○	○	○	○	○		
강원							○	○		○	○	○		○
전남									○					○
전북		○		○	○	○							○	
경남	○		○											

주: ○는 상위 1, 2위에 해당함

자료: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계획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전라북도의 여건 상 시장 잠재력이 높은 한·양방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의료관광 시장을 점유해야 함

[한방관광자원과 한방의료서비스 자원]

한방관광자원		한방의료서비스 자원	
의료서비스자원	한방기술(맥진, 침술, 사상체질분류 등)	한방병원	침술검진, 중풍예방및치료, 한방비만치료, 사상체질분류, 재활치료, 물리치료, 뜸·부황치료, 기공치료, 한방종합검진, 한방진단, 아로마요법, 아토피치료, 한방물리요법, 훈증요법 등
상품자원	한방차, 한방음료수, 한방전통음식, 한방피부연고 등		
천연자원	약초(허브) 등	한의원	침술, 체질감별, 식이요법상담, 뜸치료, 부황치료, 테이핑요법, 운동요법, 비만치료, 한방피부관리, 물리치료, 건강상담, 한방진단, 명상 및 최면치료, 아로마 요법, 각종 물리치료 등
관람, 시설자원	축제 및 박람회, 약초재배단지, 한방테마파크 등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참고하여 재작성

- 특히, 정부는 08년 시장규모 4조6천억원, 고용인원 3만7천명 수준인 한의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2012년 6조 4천억원, 5만1천명 고용 창출 계획을 전망하고 있음
- 한·양방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산업은 고령자의 수요증가, 초기상태의 시장규모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고 의료, 문화, 관광, R&D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한·양방 및 특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타 지역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음. 전북을 전통적인 동양 의학권의 관광 시장으로 육성하고 한의약 R&D 사업의 역점 추진을 통해 산업적 시장 선점 가능성을 확대해야 함

□ **상품개발방향(안) 및 의료관광 H-Belt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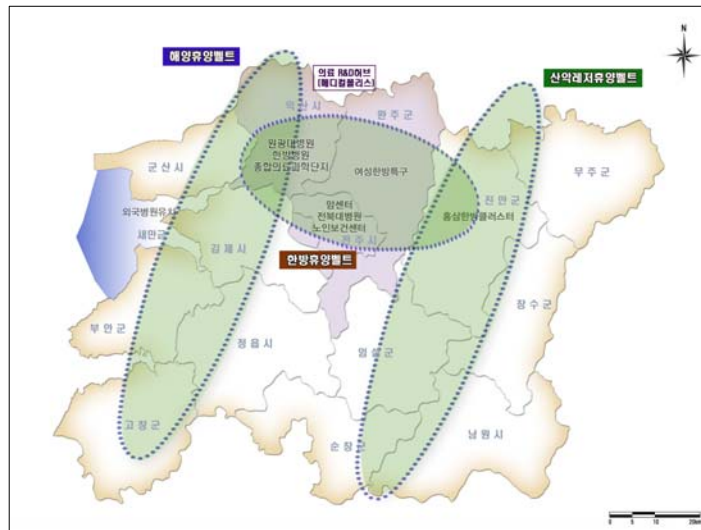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의료관광 추진을 위해서는 특화된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비즈니스 또는 관광,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연계된 하나의 패키지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함

[전라북도 의료관광 Target별 상품개발 및 방향]

대상국가 구분		미국	일본	중국
기본방향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 이용, 귀소본능활용, 가격 경쟁력	·한류 및 지리적 접근성, 관광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	·한류 및 높은 지리적 접근성, 고소득층 소비 성향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제공
계층	젊은층	고국방문(+관광)	한류(+관광)	한류(+관광)
	중장년층	비즈니스, 웰빙(+관광)	비즈니스, 웰빙(+관광)	비즈니스, 고급의료(+관광)
	노년층			
의료서비스 분야		호흡기치료, 한방, 요양, 한양방 협진건강검진서비스	호흡기치료, 미용, 한방, 요양, 한양방 협진건강검진서비스	호흡기치료, 한방, 요양, 한양방 협진건강검진서비스, 중증치료
테마		호흡기치료, 사상체질요법, 한방첩약요법, 한양방종합검진, 한방시술, 한방 한약체험, 황토온열치료체험, 약재목욕치료체험, 명상치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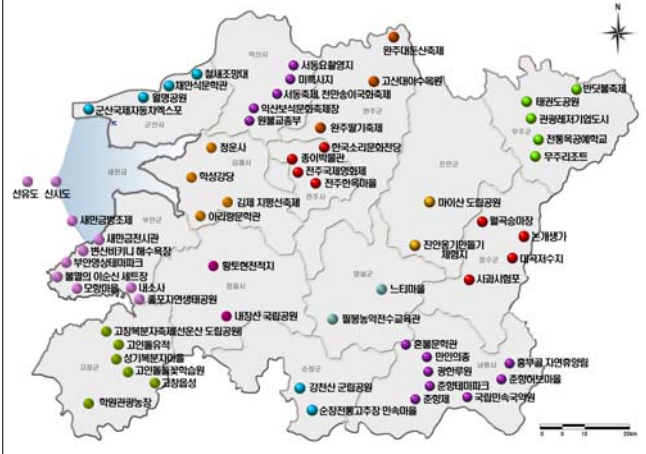

- 전라북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의료관광벨트(H-Belt)** 구축. 의료관광벨트는 크게 해양휴양벨트, 산악레저휴양벨트, 한방휴양벨트로 구분 가능함

[전라북도 의료관광 H-Belt]



- 해양휴양벨트는 새만금, 군산, 정읍, 고창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산악레저휴양벨트는 무주, 장수, 남원, 순창, 임실 등을 중심으로 구축. 한방휴양벨트는 전주, 익산, 완주, 진안 등을 중

심으로 한 의료 R&D 허브(메디컬폴리스) 구축하며, 최종적으로 두 벨트를 서로 연계시켜 전라북도의 의료관광 H-Belt를 구축. 특히 모악여성한방특구는 기수련을 통한 재활, 휴양을 연계하고 있어 의료관광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음

완주모악여성한방특구	전라북도 관광자원 현황
<p>●한방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한방 재활센터, 기수련원, 한방불임연구소, 한방테마파크, 편의시설</p>	
	

전략 2. 의료한방건강산업 기반 집적화단지 조성

● 전라북도가 경쟁력 있는 의료한방건강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료한방건강산업 및 관광 인프라 강화, 장기적으로 외국병원 유치 등 집적화 단지로 확대

1) 사업의 필요성

●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한방건강산업 기반 집적단지 조성 필요: 정부의 의지와 기술 융합화

- 정부는 의료관광을 포함하여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뷰티 등 보건·의료·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 예정
- 병원 중심의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 IT·BT·NT 등의 이종기술간 융합을 통한 한방의료기기개발, 한방식품, 한방의약품, 한방화장품 등 산업제품 개발 촉진
- 만성질환의 증가, 고령화 이행, 환경성 질환 급증 등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U-Healthcare 구축 등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 추진 기반 강화
 - 따라서 전북은 **의료서비스 산업, 한의약산업, 건강산업** 등의 상호 연관관계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수요 지향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정착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산업발전 촉진, 도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환자 유치 등 다양한 효과를 전망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의료관광 자원 활용 및 전략산업과 연계를 통한 융합개념의 집적화 단지 조성 추진: **산업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 필요**
 - 의료관광에 대한 시각을 ‘해외환자유치’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 산업적 기반 연계 강화하여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인식 전환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 의료관광산업의 경우 다양한 모태산업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북지역의 우수한 특화 부문의 선택과 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등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집중 육성이 필요
 - 전북은 청정자연환경 및 우수한 관광자원의 보유,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풍부한 전통문화자원, 한방산업 인프라, 음식과 식품이 특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관광 단일 사업보다는 한·양방+관광+식품+휴양+치료 등의 복합적 산업추진이 용이할 것임
 - 단지조성은 정부의 특화와 실용을 수용하는 선도 지역으로 국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략적 지원이 필요: **글로벌 의료수요 선점의 Global Focal Point 구축**

- 전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한의학산업+건강산업 등의 연계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새만금 지역의 산업 기반 등이 융합적으로 연계된 성장 동력이 집중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화 선도 모델 지역임
-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관광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산업, 한의학산업, 의료산업, 건강산업 등은 고위험(high-risk), 장기투자(long-term investment)가 요구되는 다단계의 복합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장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존의 인프라 조성된 전북 지역을 선택,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환황해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북은 중국 시장 및 동북아 의료관광 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 및 다국적 제약회사 등의 유치가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의료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규모의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의 지리적 양호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2) 사업 추진 계획(안)

1안 : 복합의료레저단지 조성

□ 복합의료레저단지의 정의

- 복합의료레저단지는 의료, 건강관련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제품화 또는 의료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병원-기업 등이 집적화되어 부문별 기능을 담당하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단지 조성 의미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 대폭 완화하는 경제자유

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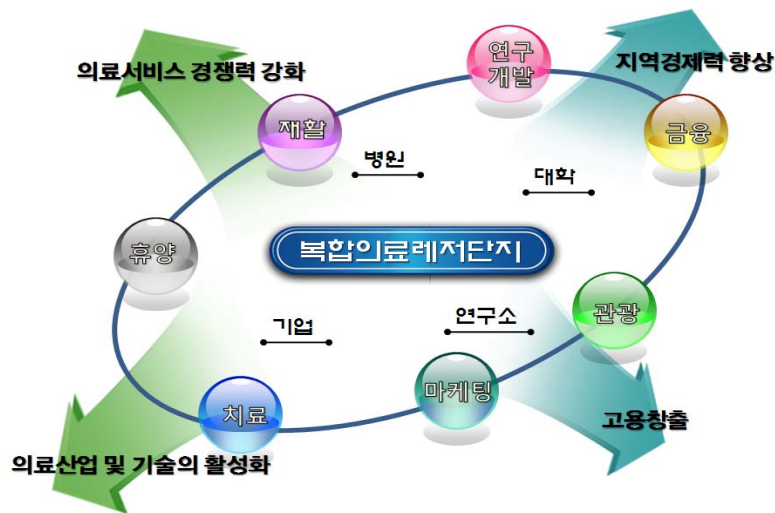
〈주요내용〉

-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경우 외국의료기관 종사가능
-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지원 허용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호텔 등 숙박업 영업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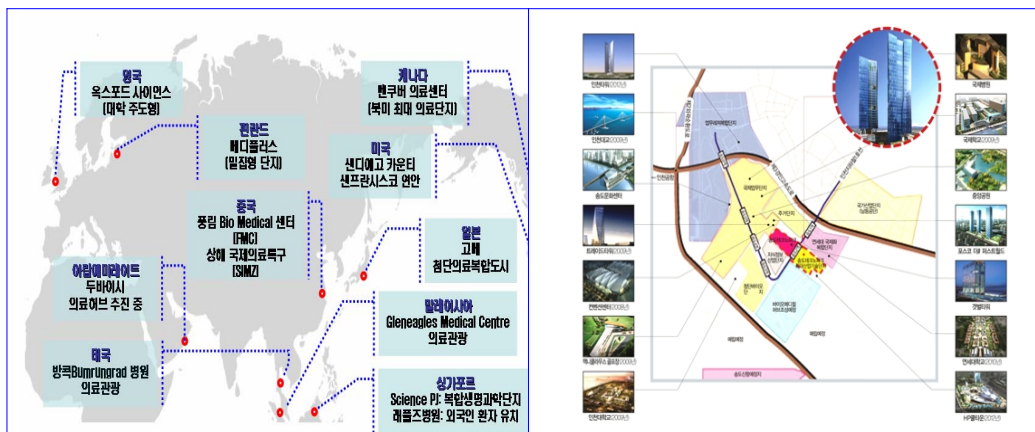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역은 향후 환황해권 중추 기지로 부상할 잠재력이 높으며, 식품산업 기반 및 해양관광지, 천혜 자연조건 및 풍부한 관광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 시장 및 동북아 의료관광 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 및 다국적 제약회사 등의 유치**와 더불어 **복합의료레저단지 조성**
 - 송도는 NYP(뉴욕장로교회병원) · 미국MD앤더슨 유치, 대구는 에모리병원 유치 추진 중임
- 복합의료레저단지내에 특화의료 R&D는 **재생의학과 대체의학**을 중심으로 외국계 병원 및 연구기관을 유치
 - 재생의학은 미국 하버드 대학, 피츠버그 대학, 노스캐롤리나주의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 등에서 연구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 미국의 연구자들은 FDA 규제를 피해 타국에서 연구 활동을 선호하고 있어 국내의 첨단 IT 기술과 우수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선점시 공동연구 및 투자 유치에 이점 있음
 - 대체의학은 미국의 의료보험재정위기, 질병예방증시, 식이영양치료 시장 급성장 등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 총 의료비용의 60%가 대체의학진료비로 지출되고 있어 시장성이 큼
- 장기적인 재활치료와 의료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시설, 휴양시설, 금융 시설, 편의시설 등이 연계된 복합단지로 병원,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R&D 기능을 담당하는 단지

- 의료관광과 한방 및 첨단의료 연구 및 의료서비스가 지리적, 시간적 근접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지로 진단+휴양+치료+한양방협진서비스+재활+관광+금융+R&D등의 연관산업까지 포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허브 기지 의미

[복합의료레저단지 개념도]



- 복합의료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전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관 기관, 지자체에 조성되어 있거나 계획 중인 클러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등을 연계하는 HUB & Spoke 체제 구축으로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하는 단지를 의미



[세계 의료허브 현황]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도]

□ 복합의료레저단지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복합의료레저단지의 목표 및 사업(안)
 - 미래 글로벌 의료관광 수요의 선점
 - R&D 성과의 상용화 촉진 체제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 한의약산업 · 건강산업의 동반성장 및 허브 역할 수행

[복합의료레저단지 추진사업(안)]

분야	세부 추진 사업(안)
연구개발	임상연구센터, 한의약개발지원센터, 벤처연구타운, 첨단의료산업 연구센터, 재생의학연구소 설립, 대체의학연구센터
유통생산, 금융	다국적 제약회사 유치, 다국적 은행 및 보험사
치료, 재활	한양방협진 치료센터, 대학병원 분원, 외국병원 유치
마케팅	의료관광협력지원센터, 팸투어, 특화진료 등
음식	식이요법 및 한방음식, 한방건강기능성식품 등
휴양 및 관광	노보텔(병의원+호텔)조성, 휴양시설, 한방온천, 체험시설, 관광시설, 의료관광단유치, 팸투어

- 복합의료레저단지의 기대효과
 - 복합의료레저단지 조성을 통해 중국, 일본 및 동북아 시장 등의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이 증가할 것이며, 동시에 의료관광 시장의 확대를 촉진하고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 할 것임
 - 복합의료레저단지 조성을 통해 한의학, 대체의학, 첨단의학 등이 연계된 실용화 기술의 개발 촉진, R&D 활성화에 따른 연구 인력이 증가되고 성장 동력원으로 발전 가능성 확대

2안 : 의료 R&D 메디컬 폴리스 조성

- 집적화 단지의 추진을 위해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초 시설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 지역에 취약한 R&D 역량을 보강하여

휴양 및 치료, 관광, R&D를 연계시키기 위한 단지 조성

- 전북 지역에 형성되어 있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익산(종합의료 과학산단지)** 및 **완주(모악여성한방특구)**, **진안(아토피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R&D 인프라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 한방, 섬유, 식품, 부품소재, IT 등과의 융합화를 통한 성장동력산업 기반 구축 및 국가 사업으로 추진

추진사업 1 : 국가 천식·아토피 치료 복합 클러스터 조성

- 정부는 서구화, 산업화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로 천식·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 급증으로 국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은 각각 111%, 661%로 급증

[국내 천식·아토피피부염 증가율]

의사진단 유병률(1,000명 당)	1998년	2001년	2005년	증가율
천식	11.0명	12.9명	23.3명	111%
아토피피부염	-	12.0명	91.4명	66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아토피 및 천식과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청소년기 및 노인까지 전생애를 거쳐 발생, 잦은 재발과 증상악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 초래
 - 천식의 사회 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2조 484억원¹⁾ 으로 악성종양(5.5조원), 심·뇌혈관질환(5.4조원) 등 중증질환에 비견되는 수준임
 - 소아·청소년기 질병부담 조사에서 천식이 1위(소아 78.4%, 청소년기 42.0%), 아토피 피부염(소아 3.4%, 청소년기 7.0%) 등 피부질환 3위로 나타날 정도 부담률이 높고, 천식의 경우

1)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천식의 사회적 비용. 2005

75세 이상 유병율이 94.79명(인구1,000명당)으로 미국 87.20 명보다 높은 수준임(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 아토피 발생률 및 유병률 전국 10% 현황을 보면 전북 지역의 경우 부안군이 발생률 4.4명(17위), 유병률 10.7%(2위) 등으로 상위 10% 지역에 해당되며, 유병률의 경우 익산 9.2%, 완산구 9.0%, 덕진구 8.9%로 나타남²⁾

[아토피 발생률 및 유병률 전국 상위 10% 현황]

No	순위	발생률		순위	유병률	
		지역	인구 만 명당 환자 숫자		지역	%
01	01	서울 중구	31.8	01	강원 인제군	11.7
02	02	서울 종로구	13.8	02	전북 부안군	10.7
03	03	서울 강남구	11.0	03	충남 마산시	10.6
04	04	서울 서초구	9.7	04	강원 속초시	10.5
05	05	서울 영등포구	8.3	04	충북 옥천군	10.5
06	06	부산 중구	6.0	06	인천 중구	10.2
07	07	서울 용산구	5.4	06	경기 김포시	10.2
08	07	부산 강서구	5.4	08	경기 하남시	10.1
09	07	대구 중구	5.4	09	제주 제주시	10.0
10	10	서울 마포구	4.9	10	서울 중랑구	9.8
11	10	인천 중구	4.9	11	인천 남구	9.6
12	10	충북 음성군	4.9	12	서울 서대문구	9.4
13	13	광주 동구	4.7	12	서울 강동구	9.4
14	13	강원 고성군	4.7	14	대전 중구	9.3
15	15	충남 마산시	4.6	14	충남 계룡시	9.3
16	16	경북 문경시	4.5	14	충남 부여군	9.3
17	17	강원 속초시	4.4	17	강원 고성군	9.2
18	17	충북 옥천군	4.4	17	전북 익산시	9.2
19	17	충남 논산시	4.4	19	광주 서구	9.1
20	17	충남 부여군	4.4	19	대전 동구	9.1
21	17	전북 부안군	4.4	19	제주 북제주군	9.1
22	22	서울 동대문구	4.3	22	서울 은평구	9.0
23	22	서울 금천구	4.3	22	울산 동구	9.0
24	22	인천 동구	4.3	22	충남 금산군	9.0
25	22	충남 연기군	4.3	22	전북 전주시 완산구	9.0
26	22	제주 제주시	4.3	23	서울 판악구	8.9
27				23	대전 서구	8.9
28				23	경기 성남시 수정구	8.9
29				23	경기 안산시 단원구	8.9
30				23	전북 전주시 덕진구	8.9

- 따라서 국내에 아직까지 취약한 천식·아토피 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치료 및 R&D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천식·아토피 치료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매우 큼. 천식·아토피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악화인자의 예방, 관리 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들이 효율적으로 실용화 및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클러스터 조성은 매우 중요

- 현재 진안군에서 아토피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 오마이뉴스(2008.1.12) '영유아 및 소아의 지역별 알레르기 질환 실태분석'(단병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주요 사업은 아토피 양·한방협진치료센터, 아토피연구소 설립, 아토피레저파크, 약초식물원 등임. 향후 정부 주도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안군 및 의료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을 선정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천식 및 아토피 등과 연관 관계를 강화하고 R&D 기능 및 수요 지향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해야 함

- 정부는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성질환연구센터 및 위해물질 종합관리를 위해 **128억원 투자** 및 심뇌혈관질환센터(2개소, 130억)설치 예정에 있어 전부의 적극적 관심 필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조성 사업]

주요사업	종합계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토피클러스터구축 ●홍삼한방약초센터 ●무릉약초식물원조성 ●한방건강증진HUB보건센터운영 ●홍삼한방농공단지조성 ●홍삼한방타운건립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건립 	

추진사업 2 : R&D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 조성

- 2단계 사업은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의약 R&D**와 **U-Healthcare R&D**를 추진하여 기존의 익산 종합의료과학단지 R&D 기반을 통한 산업화 성장 발전 지역으로 육성

□ 국가지원 한의약 R&D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 익산 종합의료과학단지는 치료+양한방협진서비스+연구+휴양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추진이 지난한 상태이며 초기 계획단계로 산업화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기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R&D 투자 방향 및 전문

인력 확보 전략 등 기본 역량 조차 미비한 상태로 임계 규모 이상의 특화 역량 구성 필요

- 미래 글로벌 한방 수요의 확보 및 수요 지향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여 도내 한의학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R&D Hub 역할 수행 및 기초연구의 상용화 촉진 체계로의 변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의산종합의료과학단지 조성 사업]

주요사업	조감도
1단계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기업유치 한양방산업연구지원센터, 익산한양방의료치료연구단지	
2단계 한방유통단지 치료의료연구단지확대	
3단계 체험관광단지조성/휴양실버타운조성	

- **한의학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사업과의 연계 및 예산 확보가 중요한 선결과제로 국가지원의 R&D 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함. 현재 정부(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학 R&D 활성화를 위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08~17)을 수립하여 한방의 산업화, 제품화를 위해 10년간 총 예산 2,656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대규모 연구과제 발굴과 기본사업의 집중화를 바탕으로 연구센터 육성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전북 지역은 다학제, 융복합 연구를 위해 만성난치병 질환 한약제제개발 등 제품화 촉진사업 및 한약제제 신약개발 임상시험센터, 한방의료기기개발 임상시험센터, 한약제제 제형개발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 등 R&D 유치를 통해 역량 극대화해야함

[정부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계획]

사업명	연구분야	실행 시기 (년)	수행 기간 (년)	센터수	사업비(억원)	
					당해년	총액
제품화세계화 촉진사업	우수 처방의 조합 및 효능개선형 한약제제 개발	' 08	10		13	130
	침자극 응용 치료기기 개발		5		5	25
	만성난치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10		13	130
	수출전략형 신 한약제제 개발	' 09	9		31	280
	맥진기술 기반해석 및 글로벌 마케팅 제품개발		5		12	60
	경락진단 기전 정의 및 글로벌 마케팅 제품개발		7		12	85
	노인성질환 및 중풍진단기술 개발		9		5	45
	항암치료 병용 한방제제 개발	' 10	6		5	30
	뜸, 부항 응용 치료기기 개발		10		2	20
	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개발	' 12	5		5	25
	新진단/치료 근거확보 및 기술 개발사업	' 13	5		5	25
	노인성질환 및 중풍치료기술 개발		6		5	30
총계						900
근거중심 한의학 구축사업	다빈도 처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연구	' 08	5		8	40
	침, 구, 부항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연구		10		6	60
	한약임상진료지침 개발		10		12	120
	한약제제 안전성, 유효성관련 연구		5		18	90
	한약진단(변증, 체질 포함) 지표 표준화	' 09	4		15	60
	한방임상시험방법론 개발	' 10	8		8	62
	한양방 협력연구 분야		8		19	150
	한약약정보 DB구축	' 11	7		17	120
	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관련 임상시험	' 13	5		6	30
	한약제제 품질 개선 임상연구		5		16	80
총 계						812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한약제제 신약개발 임상시험센터	' 09	9	4	4	144
	한약약정보 및 정책연구센터		9	1	6	55
	한방의료기기개발 임상시험센터	' 10	6	2	5	76
	한약제제 제형개발 센터		7	2	4	55
	한약제제 안전성/독성연구 센터	' 11	7	2	3.5	50
	한방국제화허브 (Hub)센터	' 15	3	1	20	60
총계						440
합계						2,152

□ U-Healthcare R&D 인프라 구축

- 전북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U-Healthcare R&D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략적인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경쟁우위가 있는 풍부한 의료자원, IT, BT, NT 등을 연계한 U-Healthcare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U-Healthcare 인프라 강화, 의학지식 정보화 기술개발, 서비스 모델 개발 등에 400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U-Healthcare 중점추진 과제(안)]

중점추진 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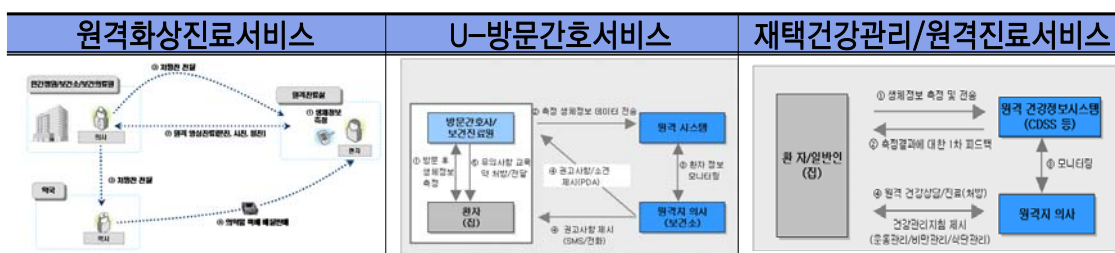
- 미래형 건강정보시스템 기반구축
- U-Health서비스 플랫폼 및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 가정용센서기반의 개인 생체정보 저장관리 및 PHR적용구조기술개발
- U-Healthcare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정비
- U-Healthcare 분야별 기술인력 양성
- 지능형 환자 안정 증진 의료정보기술
- 바이오-임상정보 융합기반의 질병예측 기술
- 생체신호-영상정보에 기반한 바이오 마커 발굴
- Clinical practice 패턴마이닝에 의한 CPG 툴 개발
- 고령자와 수술환자를 위한 u-Care 서비스
- 생활정보를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 신규 u-서비스 모델 개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care R&D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자료, 2008.5

-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U-Healthcare 시범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08.5.23), 사업은 USN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과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사업임

- USN 기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복지부 1억, 행안부 16억, 지자체 매칭펀드)은 광역자치단체 기준 3개 시군구 선정하여 복지부가 총괄사업 진행 예정

[USN 기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주요 서비스 내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 따라서 전복은 향후 성장 전망이 높은 U-Healthcare R&D 기반 구축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원 R&D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규시장 수요 창출 및 기술 개

발을 주도해야 함. 이를 위해 전북 IT특화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대학, 통신사업자, 의료기기업체, 솔루션 업체 등 다양한 산업체 참여와 지자체 연계를 통한 산업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전략 3. 의료관광 협력 및 추진체계 구축

• 전라북도 의료관광 추진을 위한 의료관광 추진체계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전라북도 의료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담인력을 배치함. 전담인력의 주된 업무는 해외마케팅 지원, 의료관광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서비스 통계 구축, 의료기관의 인프라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조성임
- 전라북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함. 전라북도 의료관광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의 선정, 지원 등을 결정하고 참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해외환자 유치 추진. 협의회의 구성은 의료기관, 여행업체, 의료관광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공동네트워크 구축 운영
- 전라북도의 의료관광 추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진료 분야별로 협력병원을 선정함. 협력병원의 선정 기준은 외국인 환자치료실적, 관련 통계자료의 정비, 홍보 및 마케팅 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전라북도 의료관광협의회 기관별 역할(안)]

기 관	주 요 내 용
전라북도	·의료관광 정책 비전 제시 및 사업방향 설정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 ·도내 관련 기관 및 중앙부처 등의 업무협력관계 설정
의료기관	·경쟁력 있는 의료상품 개발 ·one-stop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관련 산업체	·관광여행사, 보험회사, 숙박업체, 에이전시 등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연계된 상품 개발 ·의료관광 관련 인력의 의료교육, 언어교육, 서비스 교육 등 실시
전문가	·의료기관 및 관련 산업체, 전라북도 간 가교역할 ·의료기관 해외 환자 유치 관련 애로 해소 사항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경쟁력 있는 특정 진료 분야를 선정하여 구성한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도내 병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내 의료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전라북도 의료관광추진 주요사업(안)]

사업	주 요 내 용
의료관광전담여행사 지정	·해외지사를 둔 여행사를 선발하여 의료관광전담여행사지정 ·지정 여행사와 참여 병·의원간 MOU체결
협력병원 선정 및 MOU체결	·참여 협력병원 선정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가입 추진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전라북도, 의료기관, 전문가, 관광협회 등 다양한 기관 참여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 육성	·의료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0명)

사업추진 로드맵

• 의료관광 및 산업기반 추진을 위해 추진주체의 명료화와 연도별 추진 사업 등의 로드맵을 통해 전라북도 의료관광 및 산업인프라 구축

주요사업	연도	추진주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의료관광전담여행사지정		전북도						
•협력병원 선정		전북도/ 민간						
•여행사와 참여 병원간 MOU체결		전북도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전북도/ 민간						
•다국적 의료관광 홈페이지 개설		전북도/ 민간						
•병의원 동시통역시스템 설치		민간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 인력육성		전북도/ 민간						
•의료관광 기본 계획 수립		전북도						
•호흡기질환및한방특화기능보강		민간						
•의료관광 지자체 인프라 기능 지원		전북도/ 지자체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전북도/ 지자체/ 민간						
•원스톱 서비스 센터 설치		민간						
•의료관광 포럼 운영		전북도/ 민간						
•의료관광 홍보 콘텐츠 개발		전북도/ 민간/자 자체						
•의료관광 팸 투어 실시		전북도/ 민간						
•복합의료레저단지 조성 의료R&D 메디컬 플리스 조성		전북도/ 민간/지 자체						
•해외병원유치		전북도/ 민간						